

투데이 칼럼

독일의 과거 청산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이었다. 종전 후 독일은 철저한 과거 청산을 통해 나치즘의 과거를 극복했다. 반면 일본은 과거를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군국주의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군국주의 명령의 부활을 알리는 조짐이 일고 있다. 일본은 독일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지금까지도 식민지배의 과거에 대해 진정함 반성도 사과도 없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전범을 추모하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일본의 현재와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일이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일본과 달리 독일의 경우는 성공적인 과거 청산이 국가 발전의 토대이자 원동력이었다. 독일의 수천 년 역사에서 히틀러의 집권 기간은 12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독일의 화교에서는 이 기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선동가 관בל 교육 등 일련의 '정치 교육'을 중시하는 것도 나치 청산의 일환이다. 독일 화교는 마치 나치 과거와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 나치의 최대 피해자인 유대인에 대한 태도에서도 독일 과거 청산의 진정성



정복규
논설위원

을 느낄 수 있다. 베를린은 '유대인의 도시'를 방불케 한다. 도시 전체가 나치 과거에 대한 '거대한 반성문'이다. 독일은 제2차 대전 후 주변국과 역사 대화를 풀입없이 해 왔다. 특히 프랑스와 폴란드를 비롯한 나치 점령지의 각 지역에서 과거 청산을 꺼내 들었다. 과거 독일이 자행한 잔학한 행위와 공포를 줄이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밝혔다.

결국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서독의 노력은 주변국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동·서독이 통일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피해 국가였다. 전쟁으로 600만 명의 인구가 희생되었다.

국민 100명당 22명이 희생된 것이다. 독일은 과거 역사의 부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장섰다. 먼저 폴란드와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섰다. 화해하고 사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만당 정권 동안에는 보수적인 외교 노선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 문제는 브란트 수상이 적극 나섰다. 소련과의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어감에 따라 폴란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서독은 폴란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경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독일에 대한 공포와 불신감 제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이 오테르·나이세 국경선을 폴란드 서부 국경선으로 인정함에 따라 1970년 12월 바르샤바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서명을 위해 브란트 수상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공식적으로 폴란드를 방문했다. 그는 조약에 서명하기 전 공식적인 외교 행사로 바르샤바 근교에 있는 유대인 학살 묘비 탑에 헌화했다. 그는 탑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 처하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위로했다.

브란트 수상이 유대인 묘비 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광경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독일의 정치 지도자가 진실로 폴란드에 사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독일의 과거 청산과 화해의 노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브란트 수상의 화해 노력과 바르샤바 조약은 폴란드와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1970년 12월 7일에 체결된 바르샤바 조약은 희생과 불행으로 얼룩진 양국 관계를 종식했다.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197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판란트 수도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평화안보회의 정상회담이다.

서독 정치인들은 폴란드를 방문할 때마다 독일인 이주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결국 1982년까지 이주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폴란드 국내 정치가 점차 민주화되어 감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발전하였다.

사설

북한 사람 이해하기

북한에서는 왜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많다. 북한 사람들은 전체주의 공포체제에서 완전한 굴복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답이다.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신의 행동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지도 그렇게 할 뿐이다. 국가에 대해 단성적인 불안과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저항의 의지조차 가지지 못한다. 북한은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 이상의 폭력사회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적인 환경이다.

정치범 수용소와 연좌제 공개 처형, 비밀경찰이 전체주의 북한의 실체다. 북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력하고 의존적이다. 공포정치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

주체사상은 궁극적으로 최고 존엄에 대한 숭배의식, 절대적 복종과 충성을 추구하는 혁명적 수령관으로 귀결된다. 무신론을 추구하면서 국가통치

이념의 주체종교가 창시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식량 위기를 겪은 이후 점차 변하고 있다. 감시통제 체계에 틀어 생기고 있다. 장터를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장마당 세대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났다.

이들은 굶주림과 기아를 경험하며 "돈이면 다 통한다"라는 신념을 갖는 세대다. 1990년대에 겪은 충격적인 위기를 통해 이전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생겨났다. 이들은 사회규범과 질서가 뒤 흔들리는 틈바구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행과 스타일이 비교적 자유롭다. 장마당 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정치사상 교육을 무차별적으로 접해보지 못했다.

최고 존엄에 대한 신뢰감도 별로 없다. 절대적으로 국가에 의존하지도 복종하지도 않는다. 북한에서 생겨난 일상의 저항이 심상치 않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북한 사람들의 일상에 주목한다.

흔들리는 대선 전망

대선 전망이 요동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안 후보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 않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윤 후보의 각종 약재가 겹치면서 서서히 지지율이 하락해왔다.

좀처럼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 들어 꿈틀대기 시작했다. 여론 조사에서도 윤 후보는 하락세, 안 후보는 상승세 기류가 뚜렷하다.

안 후보의 급상승은 윤 후보의 실책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입당 전까지만 해도 윤 후보가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입당 후에도 선두를 유지했다. 그러나 약재가 겹치면서 흔들렸다. 반면 안 후보는 지지율 정체 속에서도 꾸준히 현장 행보를 진행해왔다.

특히 대장동 특혜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상륙검'을 요구하며 두 후보 모두를 압박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은 역대 대선

중 가장 비호감이 높다. 결국 부정·부패 의혹에 휘말린 적이 없는 안 후보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 안 후보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당장 윤 후보를 겨냥한 '후보 교체론'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엔 정당할 수 없다.

윤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해 "한국 정치 발전에 역할을 많이 해 오셨고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고 다소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을 고려한 듯한 발언이다.

안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면 대선 완주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모두 완주할 경우, 범야권 후보들(홍준표·안철수·유승민)이 모두 출마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패배했던 2017년 대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윤 후보 측과 안 후보 측 모두 '범야권 후보 단일화'는 불가피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핵무기 금지 요구 시위하는 그린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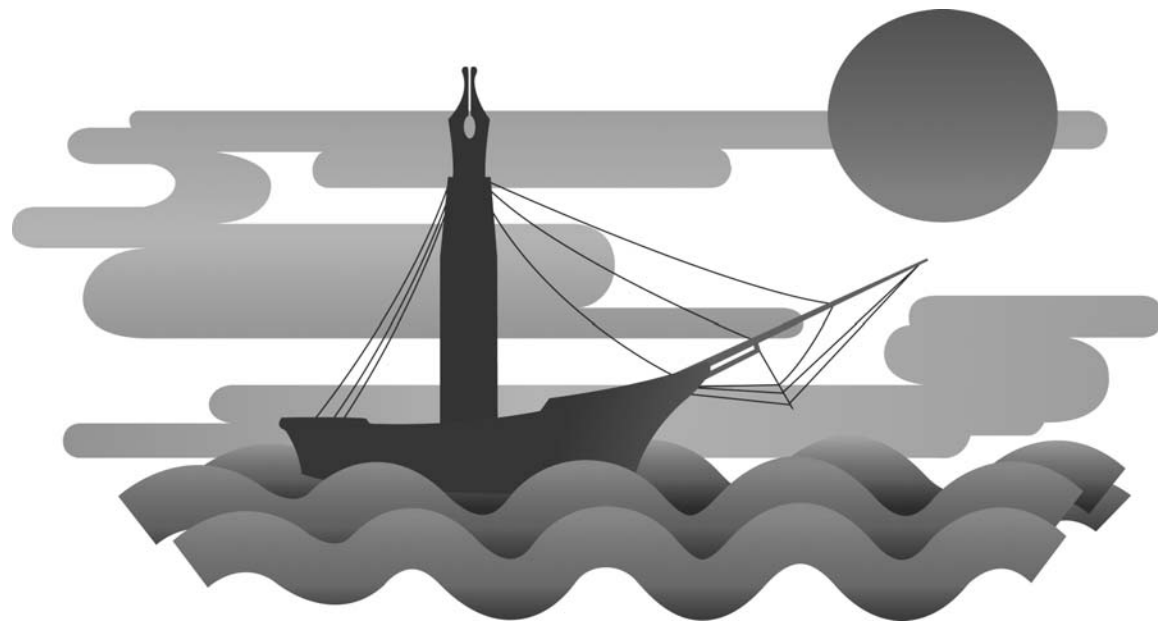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지난 2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구 의사당 건물에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핵무기 금지를 요구하는 슬로건과 함께 핵 구름이 조명으로 비치고 있다. 그린피스는 독일 정부가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우디 사막에 내린 눈



지난 11일 사진작가 오사마 알하리비가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메디나 인근 바드르 사막에 눈이 내려 하얗게 뒤덮인 설경을 포착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 (사진=오사마 알하리비 인스타그램 갈무리)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